

광양, 2022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최우수상'

광양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개 부문(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사업) 모두 '최우수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일자리 최고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작년 최우수상에 이은 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8년 연속 수상과 8,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개청 이래 최초 일자리대상 전 부문 수상이라는 뜻깊은 영예를 안았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평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2차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정부 일자리 분야 최고 수준의 평가이다.

공시제 부문 평가에서는 일상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통한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요 성과로는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일자리 회복 총력대응으로 고용률 69.3%, 취업자 7만9천900명, 상용근로자 4만3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3개 고용지

표 모두 상승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우수사업 부문 평가에서는 광양시와 (사)광양만권HRD센터가 추진한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융합적 교육 추진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안정적 기능인력 지속 연계를 통해 지역 내 핵심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유빈 기자

순천,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과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미래 정원 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정원전문리더 양성을 위해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교육 심화과정으로, 정원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시에서 운영하는 RHS(영국왕립원예협회), 전라남도 정원전문가 등 정원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 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2개 과정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 각 25명을 모집해 8월 24일부터 15주간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존 가든 마스터 수료조건은 출석과 평가결과로 수료가 가능했으나, 이번 하반기 교육부터는 8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수료조건에 추가함에 따라 교육생들의 현장 활동성 강화를 도모했다.

교육희망자는 경력 및 수료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정원산업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 ▲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정원용 소재생산반 ▲정원디자인반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4개과정을 모두 수료할 경우 정원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순천시 인증 가든 마스터 증을 수여받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가든 마스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정원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원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원산업과(061-749-27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유빈 기자

구례,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 6세대 모집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8월 12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2기) 참가자 6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마을은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한 지리산효장수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올해 1기(6세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참가해 수료를 마쳤고, 2기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9월부터 최대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과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영농실습 교육 등 '귀촌형' 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전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며,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동)지역 거주민이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좌측 상단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3개월 동안 지역을 탐색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귀농·귀촌을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선식 기자



곡성군 꿈키움마루에서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드론 레이싱대회가 열렸다. 옥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로 STEAM 교육(로봇, 드론, 코딩)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드론 대회 열려

곡성군 꿈키움마루에서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렸다.

옥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로 STEAM 교육(로봇, 드론, 코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올 상반기에 진행된 교육 내용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전원 드론 레이싱 완주에 성공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연계해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있다. 만 13세에서 만 15세 청소년이 대상이며 매주 월~금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 이외에도 급식, 상담, 학습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심선식 기자

여수시,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질병관리청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연령층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타입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서도 접종이 실시된다.

기저질환은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암, 당뇨병, 비만 등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3가지 중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해야 접종 가능하며, 기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이나 콜센터 1339, 여수시 예방접종 콜센터(061-659-5630)에서 할 수 있다. 단,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사전 연락해 잔여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여수시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 접종은 8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접종(1, 2차)만 완료하는 경우보다 추가접종(3, 4차)을 할 경우 더 높은 면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